

77계단·옥단이 길...뚜벅뚜벅 걸으며 근대 역사문화 배우다

新

남도
태극
리지

목포

◇근대 역사문화 찾아가는 '레트로' 목포여행
이번 목포 여행은 일제강점기 건립된 기관 건물이 아니라 유달 초등학교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은 변화로와 해안로를 따라 자리하고 있는 일본식 가옥과 상가를 주로 들여다보기로 하자.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일본식 건물 벽에 부착된 지도에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15곳의 사진과 함께 붉은 색으로 동선을 표시해 놓았다.

유달 초등학교(당시 목포 심상소학교) 앞에 위치한 2층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718-1호)은 '쌈집문구'라는 상호를 달고 있다. 농업과 임업, 개간지 임대차 업무를 하던 후쿠다(福田) 농업주식회사 사택으로 1935년 건축됐다. 2층은 워낙 낡은 탓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여행자들에게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바다와 나란한 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좌우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건물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온다. 한 건물 벽에 '만호동 주민들 맴(마음) 담긴 편지'가 생생한 전라도말로 쓰여져 있다. 딱딱한 다리를 멈추고 문구를 읽어보니 절로 웃음이 지어진다.

"오매! 만내서 솔찬히 반갑소잉-. 여기까지 오시느라 겁나게 목포 이적저적 육박지라우 둘러봉께 권 있지라우..."

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과 옛 목포 화신연쇄점 건물을 차례로 지난다. 두 건물은 당시 목포지역의 대표적인 판매시설이었다. 다시 발길을 갑자옥(甲子窟) 모자점으로 돌린다.

갑자옥은 1920년대 후반, 일제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혼마치(本町·중심가)에 유일하게 문을 연 조선인 가게였다. 영산로와 변화로가 교차



목포를 찾은 여행자들은 유달동 유달초등학교~동명동 77계단 사이 옛 일본인들의 거리를 뚜벅뚜벅 걸어 '레트로(Retro·복고) 시간여행'을 하며 목포 근대역사를 배울 수 있다. 지난 6월 갑자옥 일원에서 열린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행사 장면.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유달초등학교 앞 일본식 가옥 '쌈집문구' 거쳐
중심가 유일 조선인 가게 '갑자옥 모자점'
벚나무 심어 신사 만든 '동명동 77계단'
옛 일본인들의 거리 걸으며 레트로 시간여행

◇

서산동 '바보마당' 목원동 '옥단이 길'
차범석 생가·김암기 미술관서 그림 공부
무더위 피해 목포 야경 시티투어 즐기고
마무리는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서



물과 음악, 빛의 예술을 만끽하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춤추는 분수'.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하는 변화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유달 초등학교 앞에서 영랑횃집을 지나 갑자옥에 이르는 길은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 포장에 이르렀던 정도로 상징적인 도로다. 이태훈(76) 대표는 "선착장에 잔교(棧橋)가 있었는데, 신안과 제주에서 배가 들어오고 해서 거리가 인파로 북적거렸다"고 말했다.

목포 동명동에서는 일본 신사(神社)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동명동 77계단'이다. 이곳은 매립전 소나무가 많아 송도(松島)라고 불리는 표주박 모양의 작은 섬이었다. 1910년부터 일본인들이 이곳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벚나무를 심은 뒤 이듬해 신사를 만들었다. 유달동 유달초등학교에서 동명동 '77계단'까지 거리는 1km. 천천히 걸어서 30분 정도 걸린다.

◇서산동 시화(詩畵)마을과 '옥단이 길'
서산동을 찾은 관광객들은 '연희네 슈퍼'를 지나 좁은 골목을 따라 '바보 마당'으로 향한다. 왜 '바보 마당'이라 이름 붙였을까? 산비탈 중간에 자리한 목적지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궁금중이 풀린다. '바다가 보이는 마당'의 약칭이다. 젊은 작가들이 운영하는 미니 갤러리 등 20개 가까운 문화공간이 형성돼 있다. 작가들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작은 공간들이 전사돼 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집 벽은 화려하게 페인트칠 돼 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주민들이 직접 쓴 시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시에는 주민들의 인생이 배어있다. 80대 한유복 할머니가 쓴 '결혼'이라는 시 한편을 읽어본다.

"다 커서 큰 애기데서 결혼했네/ 신랑이 가마타고 데리러 와서 나도 가마타고 갔네/ 신랑이 머리 못 풀게 한다고/ 친구들이 고무줄로 머리를 꼬꽂 묶어 놓았제/ 첫날 밤 창호지 문구멍 뚫고 모도 엮고 있는데/ 영감은 술을 겁나게 먹고 잠만 잤제/ 그렇게 나도 잠만 잤제/ 그런데 어떻게 애가 생겼당제."

'목포의 심장'이라고 하는 목원동 일대에는 '옥단이길'



일제 강점기 일본 신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동명동 77계단'.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이 조성돼 있다.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1924~2006) 선생은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켜본 '옥단이'의 삶을 소재로 작가적 상상력을 보태 2003년에 희곡 '옥단이'를 썼다. 그는 작품해설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살았던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 살아나온 옥단의 삶의 궤적은 곧 우리 현대사의 뒷골목 풍경이기도 하다."

코스는 목포역에서 출발해 옛 동분원사 목포별원-노라노미술관-정광 정혜원(淨光 定慧院)-만인계 광장-총순

(總巡) 구종명 영세불망비-콩나물 동네-불종대터-북교동 성당-양동교회-떡통시장-남진 생가를 거쳐 원점으로 돌아온다. 전체 거리는 4.6km로, 걸어서 3~4시간이 소요된다.

차범석 생가 인근 무지개 구름다리길 벽면에는 '하늘이 내린 춤꿈'이라 불린 이매방(1927~2015) 선생의 역동적인 춤사위 벽화와 함께 '마음이 고와야 춤이 굽제'라는 선생의 어록이 새겨져 있다.

지난 7월 3일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2층에 '김암기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목포 태생인 소화 김암기(1932~2013) 화백은 목포항과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지역 어민들의 생활상을 향토색 짙은 사실적인 화풍으로 표현했다.

◇'춤추는 바다분수'와 '야경 시티투어' 인기
목포 야경 시티투어는 오후 7시 30분 목포역을 출발해 빛의 거리-유달산-삼학도-갯바위(해상 보행교)-춤추는 바다분수-만남의 폭포를 거쳐 출발지로 되돌아온다. 8월은 주 5회(화-토요일)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성인(대학생) 5000원, 군인·경로 4000원, 초·중·고생 2000원이다.

목포 여행의 마무리는 평화광장앞 바다에서 펼쳐지는 '춤추는 바다분수'다. 물과 음악, 그리고 빛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수반길이 150m, 높이 13.5m 규모의 세계 최초 초대형 부유식 바다 음악분수이다. 최대 70m까지 분사하는 바다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하는 다이나믹한 물 분사에 맞춰 영상공연과 레이저 쇼를 펼친다. 또한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홈페이지(seafountain.mokpo.go.kr)에 미리 신청하면 워터스크린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연을 자막을 이용해 띄운다. 분수 공연시간은 화-일요일 하루 3차례(오후 8시, 8시 30분, 9시)이다. 한여름 밤, 물과 빛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바다분수를 보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린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입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특별 월 회원 모집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